



#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 Article

### 미·러의 우크라이나 치킨게임, 그 의미와 향방은?

강승주

석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tmdwn5559@hufs.ac.kr

#### 우크라이나, 미·러의 지정학적 단충선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세계의 이목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만큼 뜨겁다.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경고했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2022년 1월 말이나 2월 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주장하며 예상 경로가 담긴 지도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미·러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현지시각)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전술부대를 접경지에 추가 배치하는 가운데 미국·NATO와 안보 협상의 초입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해 당사국들은 어떤 전략적 포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이번 갈등이 이미 미국과 EU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보도>



출처: 미국 언론(The U.S. SUN)

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사태를 조망하고자 한다.

#### 러시아의 의도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 차단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은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신 NATO가 추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국력이 쇠퇴한 시기에 NATO는

폴란드와 체코를 넘어 발트 3국까지 확장했다. 만약 이번 사태가 러시아가 바라는 안보 협상 타결 등의 외교적 해법으로 봉합된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까지 확장하려는 NATO를 저지하는 동시에 협상에 따른 '레드라인'을 서방으로부터 공인(또는 묵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돈바스 사태 해결을 위해 조직된 민스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참여를 봉쇄시킬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의 분열도 유도할 수 있다. 폴란드,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대척점에 위치한 국가의 대러 외교안보 정책에서 EU 회원국 간 이견이 종종 목격된다. 노드스트림2 건설을 앞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사업추진 국가와 폴란드, 발트 3국 간에 에너지 안보 대응에서 이견이 발생했듯이, 이번 군사적 긴장에 대한 대응에서도 EU는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입장 차이로 대러 에너지 관계를 고려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U 내부의 균열과 워싱턴의 대EU 관리 역량 저하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모스크바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스가격 인상과 공급 불안은 북서부 유럽국가들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안보 피로감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 젤렌스키 정부의 속셈

한편, 군사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에게 전략적 이익이란 단어는 모순적일 수 있으나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차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NATO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동'(러시아)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최전선이자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키예프에게, 실제 전쟁으로 번

지지 않는 범위 내의 갈등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여 서방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유인할 수 있다. 젤렌스키 정권 차원에서 그런 상황은 유익하다. 대선 레이스 시기부터 돈바스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불명료한 상황 속에서 반러 노선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와 함께 2024년 재선 도전에 기회적 요인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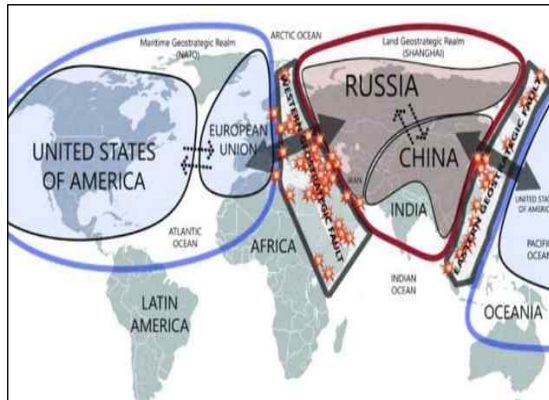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

이번 사태는 이미 치킨게임 양상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쉽게 물러서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2년 1~2월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은 회의적이다. 양국 모두 국내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 면에서 전쟁의 후과가 상당할 뿐 아니라 자칫 이번 갈등은 과거의 대리전보다 한 단계 격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1~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서구의 군사안보적 반격과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가 당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미국에게도 인도-태평양지역 이외에 새로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 동북아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현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양안관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가 제시한 안보 협상안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라시아 외부세력(미국과 유럽)과 내부세력(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단층지대

에서 한국은 동쪽, 우크라이나는 서쪽 단층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출처: Active Geostrategic Faults in the World

유럽에서 발생한 미·러의 갈등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 이후 서구가 가한 강력한 제재로 서쪽에서 길이 막히자 러시아는 ‘동’으로 눈을 돌렸다. 푸틴의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민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http://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메일 ■ [drcs@hufs.ac.kr](mailto:drcs@hufs.ac.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ufsrussiacis/>